



정교회주보

제2421호

2023.5.21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그리스 아테네 중심부에 있는 성모 희보 주교좌 대성당(사진)은 1842년 성탄절에 축성식을 거행하면서 공사가 시작되어, 1862년 5월 21일 완공되었다. 길이 40m, 넓이 20m, 높이 24m의 돔과 첨탑을 갖춘 바실리카 양식이다. 대성당 안에는 오스만 제국 식민지 시절에 순교한 필로테이와 그레고리오스 두 성인의 묘가 있다.

부활 후 제6주일 (소경 주일)

성 콘스탄티노스 대제
성 엘레니 모후
(제5조 • 조과 복음 8)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 1, 2, 3 응송 사도경 21~23
- 부활 찬양송 부활절 의식서 16
- 부활 입당송 " " 38
- 제5조 부활 찬양송 82
- 성 콘스탄티노스 대제, 엘레니 모후
축일 찬양송 173
- 성당 찬양송
- 부활 시기송 부활절 의식서 39
- 사도경 : 사도행전 26,1; 12~20; 173
- 복음경 : 요한 9,1~38 102
- 성모송 부활절 의식서 26
- 영성체성혈송 " " 42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눈을 씻어라!"

주여, 당신은 길을 가시다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발견하셨고, 제자들은 놀라서 당신께 여쭙었나이다. “선생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구세주여, 당신은 대답하셨나이다. “그의 죄 때문도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니라. 그를 통하여 하느님의 놀라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니라.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성취해야 하느니라. 나 말고는 누구도 할 수 없느니라.”

당신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긴 다음, 소경의 눈에 문질러 바르시며 그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소경은 씻고 치유 받아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외치고 당신 앞에 엎드려 절하였나이다. 그를 본받아 우리도 그리스도께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구합니다.

'오순절 전례서'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협력이 필요합니다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성사도 바울로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갈라디아 2,19-20)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로는 이 부분에 대해, 다른 한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로마 6,4)

즉,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사람으로서 세례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은 후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새 사람’이었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옛 사람’과 한 가지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옛 사람’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원죄와 욕망을 갖게 된 인간 본성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내적 투쟁이 됩니다. 이 투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대체 어디 있을까요! 이 투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그리고

투쟁의 무기인 거룩한 성사들을 잘 활용할 때,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즉, 하느님과 인간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능력과 은총은 어떤 마법이나 마술과 같은 방법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작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당에 한 번 나가거나 성화에 한 번 경배하는 것만으로 인생의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공경의 마음으로 경배하는 성인들은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중보해주시고 우리가 당신들을 본받도록 영감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은총은, 성인들의 중보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충해주시고 완성해주시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노력의 숯불’을 바치고, 하느님께서는 ‘성령의 불꽃’을 제공하셔서 거룩함의 불이 붙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거룩함에 도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름 받은 자’를 넘어서 ‘선택 받은 자’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살인의 누명을 쓴 자 (1)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이것은 실화입니다.)

아주 오래전, 그리스에서 내전(1946-1949)이 끝난 뒤, 어떤 마을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정치적 이유 때문이거나, 당시에 널리 퍼졌던 극단적 광신주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G. 라는 주민이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마을 사람 다섯 명의 증언에 따라 재판을 받았으며, 30년형을 선고받고는 투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자신은 무고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지방의 한 교도소에 감금되었는데, 밤이고 낮이고 울부짖으면서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시 한 존경받는 사제가 이 지방 교도소를 한 달에 한 번씩 순회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소성당에서 성찬예배를 집전하였으며, 원하는 이들의 고백성사를 받곤 하였습니다. 대여섯 달쯤 지나서 베드로 또한 그 사제에게 갔으며, 하느님과 고백 사제의 영대(領帶) 앞에서 맹세코 자신은 결백하다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 뒤 베드로는 완전히 변하였는데,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사제가 준 복음경을 읽고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 년도 채 안 되어 그는 무척이나 많이 변화되어서, 교도소의 동료 죄수들은 모두 그를 존경하면서 그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제는 변호사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썼지만, 증인들은 자신들이 모두 그 살인 현장에 있었다고 뒷받침하며 절대적으로 베드로의 유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제는 베드로가 정말로 무죄이며, 거짓과 사기의 희생양이라고 믿었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고, 복음경을 연구하였으며, 매우 자주 성찬예배에 참여하여 성체성혈을 모셨고, 동료 죄수들에게는 친절을 많이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발한 이들과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진짜 살인자조차도 온 마음으로 용서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과욕(過慾)의 결과이며, 또한 그들의 정신을 어둡게 하여 진실을 숨긴 악마의 잘못입니다. 하느님, 그들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1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하고 모범적인 행실 덕분에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50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전에 살던 마을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는데, 모든 사람이 그가 살인자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으며, 특히 피해자의 친척들이 그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 마을로 이사하여, 교도소에서 배운 기술을 살려 목수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성찬예배를 포함한 신비의 성사들에는 빠짐없이 참석하였으며, 복음경의 계명들을 정확하게 지켜나갔고, 특히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산소와 같았습니다. 예수 기도와 복음서는 그에게 ‘생명의 빵’이고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 5월 24일(수)
부활절 종례일
- * 5월 25일(목)
주 예수 그리스도 승천 축일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부활절 종례일 저녁 예배
5월 23일(화) 저녁 7시 30분



소 식

■ 특별 감사 기도

지난 주일(14일), 모든 성당에서는 성찬예배에 이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해제되도록 인도해 주신 하느님께 특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더불어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는 그동안 숙원이었던 성화 및 성물 복원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에 대해 감사의 기도도 드렸습니다.

성모님 성화와 세라핌 성인 성화는 축복식 후 원래의 자리에 안치되었습니다.

■ 서울 성당 음식 축제 개최

세계 음식 축제를 6월 4일 오순절 주일에 개최합니다. 주변에 정교회를 더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고 교우들 간의 친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인의 가르침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돌보아 주신다

수도 생활을 동경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조언을 듣기 위해 정기적으로 광야에 있는 사부들을 방문했다. 언젠가 매우 연로하고 병든 은수자를 발견한 그는 마음이 아파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구입하라고 가지고 있던 돈을 주려고 했다.

“수도자님, 이 돈을 받아주시시오.” 그가 은수자에게 간청하듯이 말했다. “연로하시고 몸도 안 좋으셔서 더 이상 일을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자 은수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60년이라는 세월을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네. 나를 쉬지 않고 돌보시는 그분께서 언제나 나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시지. 그런데 지금 그대가 나를 부양하는 분을 내쫓겠다는 것인가?”

연로한 은수자는 끝내 돈을 받지 않았다.

